

목포시 내년 전국체전 메인스타디움 건립 순항

목포종합경기장 계획 대비 99%... 내년 5월 주요 공사 완료



목포시는 2023년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전'의 메인스타디움으로 사용될 목포종합경기장 건립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목포종합경기장은 지상 3층, 연면적 2만6468㎡ 총 공사비 920억원이 투입되며, 전국체전의 육상과 개·폐회식 등이 열린다. 시는 현장 발생 토석(약 123만㎡, 24덤프 약 12만대 물량)의 외부 반출을 완료하고, 지난 2021년 11월 건축기초타파기를 시작했다. 현재는 건축 2층 PCI프리캐스트 콘

크리트, 제작공장에서 생산된 콘크리트 부재) 설치 공사를 진행 중이며, 전체 공정률은 42%다. 이는 계획 대비 99%로서 정상 진행 중이다. 시는 올해 안으로 대부분의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운동장 조성 및 마감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매주 시공사, 감리단과의 공정회의를 통해 철저히 공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기, 통신공사 등 각종 연계 공정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시는 내년 7월 완공에 앞서 5월까지 주요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발주 예정인 전광판 및 각종 경기 계측장비에 대해서도 우수 자재로 시공해 품질을 확보할 계획이다. **목포=김근호 기자**

화순서 게이트볼·족구대회 열린다

내일 15개 시·군 게이트볼 대회
25일 화순군수배 족구대회 개최

화순군(군수 구경관이 나드리 다목적구장과 하나움 보조구장에서) '전남 서남부권 15개 시·군 게이트볼 대회'와 '화순군수배 족구대회'를 개최한다. 전남 서남부권 15개 시·군 게이트볼 대회는 화순군게이트볼협회 주관하고 화순·전남게이트볼협회에서 주관한다. 23일 나드리 다목적구장에서 열리는 게이트볼 대회에는 46개 팀 35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할 예정이다. 예선전은 리그전으로, 본선은 추첨을 통해 대전 팀을 정해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화순=주영현 기자**

화순군수배 족구대회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하나움 보조구장에서 96개 팀 70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한다. 이 대회는 화순군체육회가 주관하고 화순·전남체육회 등에서 주최한다. '무등기 전국 어린이·어머니·교직원 배구대회'가 다음달 9일부터 10일까지 하나움 문화스포츠클터와 이용대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동호인 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고,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순=주영현 기자**

순천 두드림 프로젝트 '찾아가는 과학관'

순천만천문대, 운영기관 선정... 22~27일까지 운영

순천시는 22일부터 27일까지 순천만잡월드 인근의 순천 5G체험관에서 다양한 과학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2022 두드림 프로젝트-찾아가는 과학관'을 운영한다. 두드림 프로젝트는 지역·계층 간 과학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최하고 한국과학관협회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전국 10개 권역 중 전남권역 운영기관으로 '순천만천문대'가 선정됐다. 과학기술진흥기금 복원기금사업으로 참가비는 전액 무료로 운영된다. 이번 행사는 과학작동체험존, 비교관찰존, 놀이존으로 구성된 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천문학 관련 포럼과 과학 특별강연 등 다양한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경험해 볼 수 있다. 관람객들이 직접 만져보고 체험도 가

능하여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도록 꾸려졌다. 순천만천문대는 순천지역 '찾아가는 과학관' 운영 이후,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보성 다항체육관에서 '찾아가는 과학관' 운영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두드림 프로젝트 외에도 전남지역의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과학교육,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다양한 과학전시, 체험콘텐츠를 가까이에서 만나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순천만천문대가 지역 내 부족한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나아가 전남권 거점 과학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순천시는 22일부터 27일까지 순천만잡월드 인근의 순천 5G체험관에서 다양한 과학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2022 두드림 프로젝트-찾아가는 과학관'을 운영한다. 두드림 프로젝트는 지역·계층 간 과학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최하고 한국과학관협회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전국 10개 권역 중 전남권역 운영기관으로 '순천만천문대'가 선정됐다. 과학기술진흥기금 복원기금사업으로 참가비는 전액 무료로 운영된다. 이번 행사는 과학작동체험존, 비교관찰존, 놀이존으로 구성된 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천문학 관련 포럼과 과학 특별강연 등 다양한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경험해 볼 수 있다. 관람객들이 직접 만져보고 체험도 가

능하여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도록 꾸려졌다. 순천만천문대는 순천지역 '찾아가는 과학관' 운영 이후,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보성 다항체육관에서 '찾아가는 과학관' 운영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두드림 프로젝트 외에도 전남지역의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과학교육,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다양한 과학전시, 체험콘텐츠를 가까이에서 만나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순천만천문대가 지역 내 부족한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나아가 전남권 거점 과학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담양사랑상품권 QR결제 시스템 도입

카드·지류 상품권 없이도 결제 가능

담양군은 QR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모바일 담양사랑상품권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까지 담양사랑상품권은 지류 상품권과 일정 금액을 자신의 계정에 충전한 뒤 연결된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카드형 상품권이 있었으나 이번 QR결제 도입으로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결제가 가능해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군은 모바일 시스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이달 말까지 담양사랑상품권 모바일 상품권의 혜택을 홍보하고 QR코드

설치 및 사용 방법 등을 직접 안내한 모바일 담양사랑상품권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까지 담양사랑상품권은 지류 상품권과 일정 금액을 자신의 계정에 충전한 뒤 연결된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카드형 상품권이 있었으나 이번 QR결제 도입으로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결제가 가능해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군은 모바일 시스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이달 말까지 담양사랑상품권 모바일 상품권의 혜택을 홍보하고 QR코드

곡성 '사과 전정 전문가' 양성 나서

곡성명품농업대학 하절기 사과 과원 관리 교육 추진

곡성군이 지난 20일 곡성명품농업대학 교육생을 대상으로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한 여름철 과원 관리 교육 등 7개 분야이다. 후보자 추천은 시의원, 읍면동장, 기관·단체장, 1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의 장과 50인 이상의 연서 추천을 받은 개인이며, 동일한 공적으로 2년 이내에 재추천할 수 없다. '자랑스러운 광양인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시 명예를 빛낸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발굴·시상하며 추천 분야는 문화·관광·체육, 교육·과학, 산업·경제, 사회복지 및 환경, 공공복지, 기타 등 6개 분야이다. 수상 후보자 추천은 시의원, 국·소장, 읍면동장, 유관기관, 사회단체가 가능하고 추천기한은 다음 달 29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광양시 문화예술과(061-797-1992)로 문의하면 된다. 수상자 결정은 8월 말까지 부문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후보자 중 시장이 결정하며, 오는 제28회 광양시민의 날 기념식을 통해 시상할 예정이다. **광양=조순익 기자**

추행 정치 및 전정 등 다양한 실습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 후반부경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전정 실기시험을 진행해 졸업 후 전문 전정지원단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정지원단은 노령화 등 전정이 어려운 주민을 찾아가 현장 전정 작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사과 재배 농업인들의 현장 경험 개선과 과실 품질 향상을 위한 하절기 전정 실습도 이뤄졌다. 곡성명품농업대학은 지난 1월 사과 전정 전문가 과정을 개강했다. 전정 기술을 보급해 농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정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것이 목표다. 총 23회 102시간의 커리큘럼으로 짜여져 있으며 그동안 11차례의 교육을 진행했다. 남은 기간 선도 농가 견학, 세장방

신안 도초도 정원서 '섬 수국축제' 24일 개막

문화·전시, 스탬프 투어, 해시태그 이벤트 등

신안군은 도초도 바다 위 수국정원에서 오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10일간 '섬 수국축제'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팽나무 10리길에서 수국을 만나다'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수국공원, 환상의 정원을 중심으로 도초도 일원에서 문화·전시행사를 비롯한 스탬프투어, 해시태그 이벤트 등이 함께 진행된다. 특히 2020년 전남도 도시숲 평가 대상, 2021년 산림청 가로수부문 우

수상을 수상한 '팽나무 10리길'은 끝이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명품 팽나무 716주가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맑은 바람과 함께 숲길을 걸으며 꽃 에너지를 얻어갈 수 있는 최상의 힐링 산책 길이다.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섬 지역 특성상 불편한 교통여건에도 불구하고 벌써 1만 5000여 명이 수국공원을 다녀갔으며, 축제기간 그 어느때보다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신안=최정래 기자**

함평군, 농식품부 '농촌협약' 선정 쾌거... 333억 확보

함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협약'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함평군은 20일 "이번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국비 223억원 등 총 33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농촌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농촌 정주여건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앞서 군은 농촌협약 선정을 위해 전담부서인 미래전략실을 주축으로

중간지원 조직(행복향평공동체지원센터), 농촌협약위원회, 행정협의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농촌협약이 시행되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과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통해 지역 맞춤형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군은 농촌협약의 우선 사업권 대상 지역으로 동부사업권(함평·학교·대동·나산·해보·월야)을 설정했다. 이에 함평 생활권에 집중됐던 생활서비스 시설들이 동부사업권 면소재지에 고루 설치될 예정이다. **함평=김정섭 기자**

해보면에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학교·나산면에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등 거점면을 중심으로 생활서비스 개선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마을만들기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지역 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사업들이 지원 될 예정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농촌협약 선정이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 연말 농림축산식품부와 차질없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정섭 기자**

광양시-광양교육지원청

'오늘은 도서관 가는 날' 운영

광양시가 어린이 독서력 향상을 위해 광양교육지원청과 2년 연속 추진해 오고 있는 도서관 방문 프로그램인 '오늘은 도서관 가는 날'이 지역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디지털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로 인한 어린이들의 독서량 감소와 문해력 저하가 교육현장의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이에 광양시와 교육청은 도서관 방문의 날을 운영해 도서관과 친해지는 경험을 통해 어린이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 독서 습관을 바로잡는 데 공동의 노력을 아끼지 않기로 협의했다.

올해는 전년도에 참여한 학교들의 의견을 반영해 운영시기를 10월에서 학사일정이 다소 여유로운 6. 7월로 조정하고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횟수도 늘렸다.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의 독서 흥미를 증진하기 위한 '도서관은 내 친구'와 그림책 작가와 함께하는 '작가와의 만남'으로 구성하고, 6-7월 총 41회에 걸쳐 평일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운영 중이다. 희망도서관에 방문한 어린이들은 먼저 '도서관은 내 친구' 수업에서 사서로부터 도서관 에티켓과 이용방법을 배운 후 자료실을 둘러보고 정보탐색 놀이인 '희망빙고게임'에 참여해 다양한 책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

나주시 '전기차 충전방해'

내달부터 과태료 부과한다

전남지역 전기차 보급률 1위 도시인 나주시가 전기차 충전방해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주시는 전기차 공용충전시설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28일 친환경 자동차법 개정안 시행으로 과태료 부과 권한이 광역·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돼 시행된다. 기존에는 주차면수 100면 이상 공공건물, 공공이용시설 등의 급속 충전시설에만 적용했던 과태료 부과 대상도 '모든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로 확대됐다. 나주시는 내달 1일부터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관련 신고 접수 시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 유형은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시설·구역 내 물건 적치로 인한 충전 방해', '충전시간(급속 1시간·완속 14시간) 경과 이후 계속 주차', '충전 외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10만원을 부과한다. 또 '충전시설 고의 훼손 행위'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해당 법 개정으로 신속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의 무설치 대상이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됐다. **나주=서철훈 기자**

장흥 통합의료 힐링코디네이터 육성한다

2022년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선정... 양성교육 추진

장흥군은 6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10주간 장흥통합의료병원에서 통합의료 힐링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합의료 힐링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은 통합의학에 관심이 있는 장흥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장흥군은 지역 내 통합의료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4차산업 의료 관광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년에 이어 올해도 전라남도에서 주

관하는 2022년 전남형 동행 일자리 사업에 공모해 지난 3월에 선정되었다. 교육 프로그램은 ▲스트레스와 질병을 완화하고 마사지로 치료하는 화장품 개발·제조 ▲리듬을 이용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스포츠 리듬 트레이닝 ▲색깔이 가지는 파장과 에너지 활용하여 신체와 마음을 치료하는 컬러테라피 심리상담으로 구성돼 있다. **장흥=임민기 기자**

"광양 시민의 상·자랑스러운 광양인상 후보 추천해주세요"

내달 1~29일까지 접수

광양시는 2022년 '광양시 시민의 상' 및 '자랑스러운 광양인상 수상(출향인사)' 후보자 추천을 오는 7월 1~29일 접수한다. '광양시 시민의 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으로 광양시의 명예를 높이고 시민 모두의 귀감이 되는 시민, 내·외국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추천 부문은 교육과학, 체육진흥, 사회복지 및 환경, 지역개발, 문화홍보, 공공복지, 산업

경계 등 7개 분야이다. 후보자 추천은 시의원, 읍면동장, 기관·단체장, 1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의 장과 50인 이상의 연서 추천을 받은 개인이며, 동일한 공적으로 2년 이내에 재추천할 수 없다. '자랑스러운 광양인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시 명예를 빛낸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발굴·시상하며 추천 분야는 문화·관광·체육, 교육·과학, 산업·경제, 사회복지 및 환경, 공공복지, 기타 등 6개 분야이다. **광양=조순익 기자**

수상 후보자 추천은 시의원, 국·소장, 읍면동장, 유관기관, 사회단체가 가능하고 추천기한은 다음 달 29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광양시 문화예술과(061-797-1992)로 문의하면 된다. 수상자 결정은 8월 말까지 부문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후보자 중 시장이 결정하며, 오는 제28회 광양시민의 날 기념식을 통해 시상할 예정이다. **광양=조순익 기자**